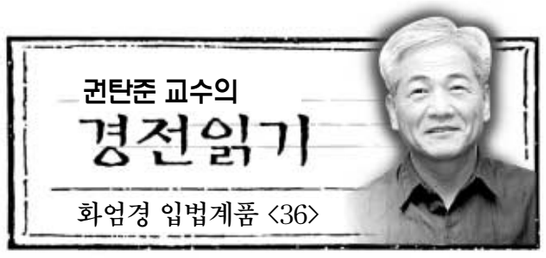

무염족왕의 법문

형벌, 악업끊고 보리심내게하는 방편

근기 성품 잘살펴 효과적인 중생 구제

선재동자는 보안장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선지식은 나를 거두어주고 보호하며 보리심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생각하였다.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가서 다라당성에 이르러 무염족왕(無厭足王)이 있는 데를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왕은 지금 정전(正殿)에서 사자좌에 앉아 나랏일을 보고 있다.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을 조복시키는데, 교화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죄 있는 이는 벌 주고 소송을 판결하며, 외롭고 힘없는 이는 위로하고 보살펴 주어서 모두 열 가지의 악업을 여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 왕은 아름답게 장엄된 정전에서 위엄을 떨치며 있었는데, 일만의 대신(大臣)과 십만의 강건한 군졸을 거느리고 있었다. 왕의 앞에는 나쁜 일을 저지른 한량없는 중생들이 오랏줄에 묶이어 끌려와서는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있었다.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도 뽑고 머리도 자르며, 살가죽을 벗기고 몸을 오리며,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불에 지지기도 하는 등 무량한 고통을 주니 소리높여 울부짖는 광경들이 커다란 지옥처럼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선재동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이 왕은 선한 법은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짓고 있다. 여기에서 무슨 법을 구하겠는가."

이때 공중에서 어떤 천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장자 선지식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생각하라.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말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해준다. 선남자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지혜 ·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 ·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지혜 ·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 ·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 · 중생을 조복시키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선재동자는 왕의 처소에 나아가 예배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왕은 선재동자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화려하게 장엄된 궁전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짓는다면 이런 과보와 이런 육신과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와 이런 자유자재함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如幻解脫]을 얻었노라. 선남자여, 나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저런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하여, 나쁜 사람으로 화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니 저 나쁜 짓을 하는 중생들이 보고서 무서운 마음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겁나는 마음을 내어 그들이 짓던 모든 나쁜 업을 끊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이렇게 교묘한 방편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열 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열 가지 착한 도를 행하여 끝까지 즐겁고 편안하고 마침내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이 지금까지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다. 선남자여,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잠깐만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일까보냐. 사람은 복밭[福田]이라서 모든 선한 법을 능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환술과 같은 해탈[如幻解脫]을 얻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무염족왕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여환해탈(如幻解脫)'의 법문은 지혜로운 방편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의 명칭이 무염족인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싫어함이나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성의 이름이 다라당(多羅幢)인 것은 '다라'가 '밝고 깨끗하다[明淨]'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밝고 깨끗한 지혜로 세간을 잘 들어가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근기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적절한 모습을 지어서[化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염족왕이 악업을 지은 중생들에게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그들에게 악업을 끊고 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방편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다. 중생을 위한 자비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이롭게 하고 만족케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혜롭게 헤아려서 필요에 따라서는 힘들고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도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자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하지 않는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데에는 지혜방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⑨

직지인심-8

공도리에 입각해서 보면 무명번뇌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무명이요 온갖 번뇌의 발단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아무튼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무명번뇌가 있다는 데로 논리가 귀결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무아(無我)를 잊지 마시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식의 주체는 우리 각자의 자아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오온(五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다가 그 요소들이 흩어지면 자연히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본다. 생각의 주체라는 것이 그처럼 허망하니 그것이 만들어낸다는 온갖 생각 또한 자연히 허망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뭐냐? 이 개념은 초기 불교 교리부터 무수하게 등장하지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리송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또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일단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즉,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믿어 의심치 않는 자아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 몸의 감각 및 지각기관과 외부의 대상이 접촉하여 만들어내는 인식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놓은 교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과 사물에 대하여 일으키는 기뻐하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감정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내리는 판단, 그 늘 변화하는 인식의 마디와 흐름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라고 착각할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정불변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지어낸 관념일 뿐이다. 그 자아가 일으킨다고 여기는 절실한 감정과 판단과 인식도 모두가 지어낸 것이다. 흔히 듣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냈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아는 없다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 또한 설명을 위한 개념일 뿐이니까.

고정불변의 자아 지어낸 관념일뿐

이쯤해서 독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겠다. 싯다르타는 생사(生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한다. 복을 받거나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 공덕을 쌓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납자(衲子)의 본분(本分)이라고 선사들이 흔히 강조하곤 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그렇다면, 싯다르타가 깨쳐서 부처가 되고 해탈했다는 것은 곧 그 생사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가? 아니다. 석가모니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인가? 이 생은 죽음으로 마감했지만 다음에는 다시 환생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한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환생은 업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서 업을 다 소멸하였다는 말인가? 진리를 깨침으로써 일거에 유루(有漏)의 업, 즉 환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다 소멸했다는데, 석가모니가 깨쳤다는 생사의 진상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휘하는가? 다음 주에 찾아뵐 때까지 이 문제를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2〉

유정·무정 개유불성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말씀 중에 유정 · 무정 개유불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무리 유마의 불이(不二) 설법에서는 사바세계와 부처님 정토가 다르지 않다고 하며 선가(禪家)에서는 유무(有無)나 마불(魔佛)이 따로 없다 하고, 우리 몸도 어차피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유정물(有情物)은 그래도 당장 눈앞에서 생생하게 돌아다니며 울고 웃고 하는 주인공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돌멩이 같은 무정물도 불성(佛性)을 지닌다 하니 어찌된 말일까.

생명체는 DNA라는 복제 가능한 유전물질을 바탕으로 생식활동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간단한 생물체로서 무생물과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어온 바이러스들도 스스로 복제하는 힘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유전물질을 지니고 있어서 숙주의 세포내에 들어와 기생하여 자신의 자손들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무생물은 유전자를 지니지 않기에 지금까지 생물과 무생물은 확실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복제 가능한 유전자에 의거한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은 1990년대에 들어와 전면적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치매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소에서의 광우병 원인체를 규명하고 나서부터였다. 프리온이라는 이 원인물질은 유전자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단순한 단백질에 불과했던 것이다. 단순한 단백질에 불과하여 유전자도 없는 무생물이 생물체내에서 증식하고 전파되어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기준인가?

이때 비로소 생명과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란 따로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유정, 무정이란 단순한 우리 기준의 분류이자 간택(揀擇)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유정, 무정이란 커다란 한 바탕으로부터 비롯되어 단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취하게 된 모양새(相)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고, 이것을 밝힌 미국의 프루즈너 교수는 1997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다.

이렇듯 우리가 생물이나 무생물로 어떻게 받아들여 이름 붙이건 그것은

프리온 증식 생·무생물 경계없음 입증

유정·무정 사람 기준의 분류에 불과

단지 이름 하여 유정, 무정이지 그 본바탕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부처님께서 이미 이천년도 넘는 오래 전에 이러한 부분을 꿰뚫어 보시고 겉모양과 무관하게 모든 것의 원래 바탕으로서 불성을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과학이 이렇듯 부처님 말씀에 맞아가는 것에 놀라게 된다(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

삼라만상이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마음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 오직 이 마음이라 불리는 불성(佛性)을 제대로 알면 대장부 일을 마칠 것이니 불성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공허한 논의는 시간 많은 이들이나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사암침술 · 명리학 강좌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저희학회에 오셔서 3개월만 수강하시면 누구나 전문가로서 삶의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사주추명학 강좌(초~고급)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법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역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2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3. 10. 8 (매주 수, 목요일.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사암침술 강좌(초~고급)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3. 10. 6(주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고급)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숫자)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 2003. 10. 10(주 1회 - 매주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초 ~ 고급)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3. 10. 8(매주 수, 목요일. 야간반 : 2개월완성)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자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355-8312

氣찬 명당을 만들어 주는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 처방을 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www.6kibang.co.kr**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가정집, 점포, 사무실에 두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불화와 우환과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